

익산시, 국가예산 1조115억 확정

익산역 확장 · 선상 주차장 · 산복천 개선 복구 등 신규사업 31건 반영
국회 단계 예산 감액 결정에도 핵심사업 지켜내... 지역 성장 동력 마련

익산시가 핵심 현안 사업의 국가 예산을 대거 확보하며 성장 가도를 다졌다. 익산시는 2025년도 국가 예산 1조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월 673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는 정현을 시장 취임 9년 동안 국가 예산 규모 62% 증가라는 폭발적인 성과 기록을 쓴 끝에 작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개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증액의 성과는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예산안 원점 재검토, 국회의 감액 예산안 결정 등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먼저, 내년도 국가 예산에는 익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31개에 대한 449억 원이 반영됐다.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시 지도부가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노력의 결실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백제 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KTX 익산역 확장 · 선상 주차장 조성 △산복천 · 대조천 개선정비 등이 포함됐다. '백제 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은 우리나라 유일한 고대 궁궐 유적인 왕궁리유적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2015년 이후부터 국도 1호선 선형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부처 등에 피력해 왔다. 올해 국비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시는 백제 왕궁 사업부지 내 발굴 조사와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도로 선형 개선에 대한 사전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익산고도 보존육성사업 완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산복천 개선 복구'에 318억 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3억 원,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에 5억 원의 국비가 각각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농기계 다품종 유연 생산을 위한 AI 자율 제초 기술개발(17억 원) 등 숙원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첫발을 떼게 됐다. 익산시는 신규사업 뿐 아니라 6대 분야 핵심현안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우선 경제 · SOC 분야를 보면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에 470억 원이 반영됐다. 경기도 평택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확충해 새만금과 산업단지 등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403억 원)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7억 5,000만 원)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7억 4,500만 원) △호남선 만경강 제2교 교량 개량(200억 원) 등이 확보돼 신산업의 경쟁력 우위에 서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게 됐다. 문화 · SOC 분야에서는 △백제 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 공간 조성(45억 2,400만 원) △익산 내사위성당 성지 문화 체험관 건립(14억 1,000만 원) △세계유산 백제 왕궁 정원 조성(21억 원) 등을 확보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축산 · 식품 분야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13억 1,200만 원) △식품 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3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101억 5,000만 원)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56억 6,30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 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78억 원) △폐석산 불법 폐기를 처리(23억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 원)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15억 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보건 · 복지 분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37억 원) △국립호남권 청소년 다목적센터(37억 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4억 원) 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 교육 · 기타 분야에서는 △글로벌대학 30(150억 원) △교육 발전특구 추진(33억 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시민들의 탄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함열역 시설개선 사업(15억 원)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한다. 이 같은 성과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일제같이 발굴하고 부처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부터 한 발 앞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선제 대응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현을 시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새만금 해양관광 활성화 '맞손'

군산 - 새만금청 등 7개 기관, 업무협약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2일 새만금 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등 6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신공항 건설에 맞춰 새롭게 세계관광의 중심으로 군산이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특화된 해양관광 여행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기관들은 새만금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상품화, 판촉,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 분위기 조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군산시 역시 협약을 통해 새만금지

역 해양관광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일례로 △신규 관광수요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새만금 지역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기관 공동 해양관광 홍보와 행사 개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협약기관과 협업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무너도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국가지질공원 명소화 등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기반을 개발하고 확충해 나가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이 K-관광의 미래를 여는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경제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돌입

김영자 예결위원장 "시민 복리증진에 적절한 예산 투입 노력"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 12일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47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0.6%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1,812억 원이다.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위기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경제 회



복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재난안전, 농가소득보전,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하겠다"라면서 "예산 심사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거듭 고민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예다음 아미고스 어린이집 개원... 362㎡ 규모 · 정원 84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12일 송학동 예다음 아미고스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석 익산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보육관계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예다음 아미고스 어린이집'은 올해

네 번째로 조성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지상 1층, 면적 362㎡ 규모로 보육실 5개, 유희실 1개, 외부 놀이시설 등을 갖췄고 정원 84명으로 운영된다. 익산시는 시행사인 ㈜영무건설과 어린이집 설치 ·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실내 개 · 보수와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영유아 부모가 아이를 안심

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폭넓은 공보육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예다음 아미고스 어린이집을 포함해 2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도 지난해 14.8%에서 올해 17.3%로 2.5% 늘어났다. 김영석 부시장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1억 원 부과 · 납부 홍보

군산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801건 111억원을 부과하고 12일부터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 · 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 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063-454-2400)에 문의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20일 동료의원 윤리심사 윤리특위에 회부

군산시의회는 12일 오전, 의장단과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우민 의장은 "먼저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대표로써 군산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